

24-2 KU Leuven 교환학생 파견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박수완

1. 지원 동기

해외여행 경험이 있긴 하지만, 모두 동양권이라 서양의 문화와 생활을 견식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유럽이 매력적이었고, 영어로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는 벨기에의 루벤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루벤대학교는 벨기에 중에서도 플랜더스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네덜란드어가 주 언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영어에 능통하여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 출국 전

출국 전에 해야 할 일로는 교환학생 신청, 기숙사 신청, 비자 발급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고 나서는 직접 루벤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환학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일처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문의 메일을 넣어도 며칠 뒤 답장이 오므로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신청은 루벤대학교 특성상 직전 학기 중에 하므로 루벤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즉시 알아봐야 합니다. 예로, 저는 24 학년 2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지만 기숙사 신청 마감은 24 년 4 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 시기를 놓쳐서 flavus 라는 학생 부동산 중개 업체에서 월세를 따로 구해서 살게 되었고, 이는 제 예산을 예상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본 보고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벤은 정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와 기숙사의 거리가 조금 멀어보여도 자전거로 20 분 안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위치를 정할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되니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정 증명은 루벤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건강검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러 갈 때와 수령하러갈 때 모두 사이트에서 약속을 잡고 가야 하므로, 여유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만료 기간은 충분히 넉넉하게 잡아서 몇 주 더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업

수강신청은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시 강의 시간과 랩시간을 따로 선택할 수 있고, 시험 일자까지 미리 정할 수 있으니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석체크는 진행하지 않으며 수업 영상을 올려주시는 교수님도 계시니 여의치 않게 수업을 빠지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공과목만 수강했는데, 랩 과제가 있는 수업도 있고 없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전자는 과제와 시험이 5:5, 후자는 시험 100%의 비율로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중간고사는 따로 없으며, 종강 후 약 3 주간의 방학 및 시험공부 기간을 가진 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2 학년 수업은 쉽게, 3 학년(유럽은 3 학년이 학부 마지막 학년입니다.) 수업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4. 생활

음식

물가는 확실히 한국보다 비쌉니다. 외식 물가는 정말 싼 가게가 아닌 이상 대략 10 유로부터 시작하고, 학식은 약 5 유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한국이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주로 샌드위치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 아시아 마트가 많아 원하는 한국 식재료는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을 것으로는 코인 욕수나 인스턴트 국 블록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학식을 포함한 많은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주로 밥처럼 먹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루벤 내에서의 이동은 대부분 자전거로 가능합니다. 동네가 작고 크게 경사도 없어서 자전거를 타기 적합합니다. Velo 와 같은 자전거 대여 업체에서 1 개월 단위로 대여해주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벤 외로의 이동은 루벤역에 가서 기차를 타면 되고, 공항까지는 약 15 분, 브뤼셀까지는 약 30 분이 소요됩니다.

해외로 나갈 때는 크게 버스, 기차, 항공편이 있습니다. 버스는 가까운 도시를 싸게 갈 때 유용합니다. 특히 파리는 버스로 4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아 편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는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하게 될텐데, 둘 다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하므로 여행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전에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비행기가 대체적으로 저렴했던 것 같은데, 위치나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격 비교를 하시고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ESN(유럽 국제학생회)에 가입하면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는데, 다 가실 필요는 없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만 몇 개 해보면 좋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현지 친구를 매칭해줍니다. 빨래는 보통 빨래방에 가져가서 합니다. 장을 볼때는 시간이 없으면 근처 까르푸, 시간이 충분하면 도시 외곽에 델헤이즈와 같은 큰 매장을 추천드립니다. 도시 외곽에 OH Leuven 축구 클럽의 홈구장이 있으므로 축구에 관심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학생 15 유로 정도로 괜찮습니다.

5. 마치며

처음으로 유럽을 가게 되어 수학하며 유럽 대학의 시스템이나 유럽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며 그들의 문화와 관습, 생활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깊은 국가들이 대부분인 만큼 각 나라의 특색도 확고하여 이를 비교하며 여행을 다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공과대학에 감사드립니다.